



## 중국조선족민속원

# 무형문화유산 매력 느끼고 민속문화 전승

푸른 기와와 하얀 벽이 어우러진 조선족 민가들 사이로 관광객들이 떡과 막걸리의 향기에 취해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음식들을 맛보고 은은하고 구수한 가야금 연주소리 속에서 <인상연길> 전통가무 공연이 막을 올린다... 이곳은 바로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있는 중국조선족민속원이다.



▲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조선족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관광객 / 김파기자

업 서비스가 친절하고 전문적이어서 느낌이 아주 좋아요!” 하고 고영이 말했다.

조선족 민족복장은 2008년도에 제 2진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명부에 등록되었다. 옷가게 주인인 최훈은 “특색을 보류하는 기초에서 우리는 한층 더 개량하여 조선족 민족복장에 여러가지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융합하였다.”고 소개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여행 사진은 흔히 관광객들이 연변과 우리 민속원을 료해하는 첫걸음이지요.” 중국조선족민속원 운영총감 주보곤의 소개였다. 최근년간 민속원에서는 특색 여행촬영 브랜드를 힘써 구축하고 복장 임대, 메이크업, 사진촬영을 일체화한 여행촬영기지를 건설했다. 이에 따라 민족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고 출책카드를 찍는 것은 적지 않은 관광객들의 연변 관광의 필수 사항으로 되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조선족민속원은 ‘관광 + 민속 + 체험’ 모식을 통해 민속전시, 무형문화유산체험, 특색 음식, 문화교류의 유기적인 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연변의 관광이 특색 문화로 인해 더욱 인기를 모으고 특색문화가 관광 열기에 따라 더 넓게 전파되도록 하고 있다.

민속원 안에 있는 한 옷가게에는 우아하고 세련돼보이는 아름다운 조선족 복장들이 가득 진열되어 눈길을 끄는 가운데 관광객들이 사업일군의 소개로 열심히 옷들을 고르고 있었다.

분장실 안에서 산서성에서 온 관광객 고영은 흰색과 파란색 무늬의 긴 치마를 갈아입고 거울 앞에 단정히 앉은 채 분장사와 메이크업, 머리 스타일 등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 소통하고 있었다. “여행촬영과 메이크



▲ 조선족애령막걸리제조기에 제 4대 전승자인 안정금(우 1)이 관광객들에게 막걸리 제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김파기자

세부에 대해 문의했어요.” 안정금은 젊은이들도 막걸리 제조기에 열심히 전승하고 깊이 연구하고 있어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안정금의 소개에 따르면 그녀가 조선족민속원에 들어와 경영을 시작한 지도 여인 10년이 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전통기술을 개량하고 혁신했는데 오디막걸리, 블루베리막걸리 등 신제품들을 출시하여 관광객들의 환영을 받았고 성수기에는 하루에 최고 큰 만원의 수입을 올리기가 쉬웠다.

도예공방에 들어서자 조선족민속도예제작기에 전승자인 김영옥이 구워져 나온 도자기를 자세히 살피고 있었다. 조선족 궁중떡 무형문화유산 체험관에는 복주머니, 진달래꽃 등 모양의 이쁜 꽃떡들이 갖 빚어져나와 많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춘 채 시식하고 있었다...

“우리는 고택을 리용하여 ‘무형문화유산산문화전시관광구역’을 만들었는데 조선족 민속에 대한 관광객들의 이해를 증진시켰고 민속문화도 생동하게 전승되고 있습니다.”라고 주보곤은 소개했다.

민속원내 연예광장에서 연변대학 예술학원 학생들이 공연하는 조선족 가무공연 <인상연길>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공연이 너무 훌륭합니다. 공연을 통해 조선족 가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광동성에서 온 관광객 장재현은 아직도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듯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민속원은 조선족 문화요소와 관광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연변대학 등과 합작하여 실경공연인 <인상연길>을 창작하였으며 다기능극장, 분수광장 등지에서 부채춤, 장고춤, 가야금 연주 등 공연들을 진행하고 있었다. 축제 때마다 민속원에서는 그네, 씨름 등 조선족 특색 무형문화유산 전시 행사들도 펼쳐진다.

중국조선족민속원내의 전통 수공예품 전시체험관에서는 관광객들이 조선족 문화 특색을 살린 열쇠고리, 랭장고 스티커 등 문화 창의 제품들을 골라 구매하고 있었다. “문화 창의 제품을 통해 조선족 전통 수공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체험관 책임인공 박정애는 허다한 조선족 전통 수공예품들도 이곳에서 전시 판매된다면서 “수공예인들이 더 많은 전시 공간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주문화라지오텔레비전방송관광국 국장 송염은 연변에서는 계속해서 문화와 관광을 서로 결부시키면서 봉사 품질을 제고하고 문화 체험을 개선하여 조선족 전통문화와 관광이 융합 속에서 혁신발전을 실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일보》 2024년 10월 10일 6면 게재)

## 길림성 22개 과학기술정원 새로 추가, 전국 1위

최근 우리 성의 22개 과학기술정원이 중국농업기술협회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동시에 전국 최초의 장과(漿果) 과학기술정원 군체가 비준을 받아 길림성에서 건설을 가동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전 성에서 중국농업과학기술협회의 승인을 받은 과학기술정원은 156개에 달하는데 그중 성내 건설 149개, 여러 성 공동건설 6개, 해외 건설 1개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다년간의 실천, 탐구를 거쳐 과학기술정원은 점차 ‘당위가 지도하고 정부가 지지하며 과학기술협회가 주도하고 부문이 련동하며 대학이 지원하고 실체가 추동하며 농민이 혜택을 보고 산업이 발전하며 향진이 진흥하는’ 모식을 형성, ‘한개 학원 건설, 한개 단체 입주, 한개 산업 추동, 한개 향촌 영항’의 사업 효과를 실현했다. 현재 과학기술정원 공동건설 대학교와 과학기술연구원으로는 길림농업대학, 연변대학, 북화대학, 길림대학, 성농업과학원, 중국농업과학원 특산연구소 등 17개이다. 전 성 과학기술정원은 시, 주 피복률이 100%, 현(시, 구) 피복률이 95%에 달하는데 인삼, 옥수수, 벼, 식용균 등 67개 산업 범주를 포괄하여 길림 특색의 ‘정원군체’를 형성했다.

현재 전 성 과학기술정원에는 도합 300여명 전문가가 있고 새 품종, 새 기술 156개(항)를 보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원은 지방 주도산업 혹은 특색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고 농업과학기술의 완정 사슬을 구축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면서 ‘일촌일업’, ‘일촌일품’ 구축과 결부해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풍부한 지적자원에 의탁해 농업기술 과학 보급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함으로써 농민들의 과학자질, 문화소양, 직업기술의 승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길림성의 과학기술정원들은 일선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농업기술교양을 루계로 800회 실시하여 3만여명에게 생산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농민의 과학소양과 농업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다. 동시에 과학기술정원은 ‘학교 - 정원 - 농촌’ 인재 양성의 새로운 경로를 열고 ‘대학 + 과학기술정원 + 기층기업 + 지방정부’가 통합된 농업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식을 추진함으로써 정원에 입주한 연구생들의 과학연구 학술 능력, 실천 능력, 조직조력 능력을 향상시켰다.

현재 우리 성은 인삼산업을 농촌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상징적 산업으로 삼고 전 성의 힘을 모아 인삼산업을 힘써 추진하고 있다. 전국 과학보급의 날 및 길림성 제 22회 과학보급 주간 행사 기간에 길림성과학기술협회는 중국농업기술협회 길림문화인삼과학기술정원, 길림무송인삼과학기술정원 등 7개의 인삼과학기술정원을 연선회 전시회에 참가시키고 현장 해설, 식물 전시, 시연 등 방식을 통해 길림 특색의 인삼산업 문화를 구축하는 데 힘을 실어주었다.

/ 길림일보



근년래 장백조선족자치현 팔도구진에서는 당지 자원 우세에 맞는 중약재인 오미자의 재배에 중시를 돌리고 과학적으로 재배 기술을 지도하면서 해마다 재배 규모를 늘리고 있는데 오미자 재배는 이미 촌민들이 수입을 늘리고 치부하는 효자산업으로 되었다. 사진은 팔도구진 신개구촌 촌민이 오미자를 따고 있는 장면이다.

/ 길림일보

## 룡정시 15일부터 열공급 시작!

10월 11일부터 룡정시의 각 열공급 기업들은 초기 운행에 들어갔다. 룡정시에서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열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룡정시에는 현재 5개의 열공급 기업이 있는데 열공급 총면적은 569.78만평방미터이다. 지금까지 룡정시에서는 석탄 약 8.22만톤을 비축해 비축률의 76.11%를 완수했다.

올해 열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각 기업들은 270만원을 투입하여 열공급 부속시설, 설비를 보수, 개조

했고 86만원을 투입해 1.83킬로미터에 달하는 열공급 도관을 개조했다.

룡정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 책임자는 “우리는 성급 열공급 전문가 모식을 취하여 도심구역의 열공급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각 정돈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열공급 전단계 준비작업을 잘해 정상적인 열공급 사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연변라지오 TV넷

##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관련 국가 일괄적 증량 정책 출시

10월 8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정창결은 현재 경제운행중의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우리 나라는 다그쳐 일괄적 증량 정책을 출시하여 경제의 지속적인 반등과 호전을 추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에서 다그쳐 출시하는 일괄적 증량 정책의 중점에는 주로 다섯가지 방면이 있다.

◆ 경제운행의 하향 압력에 비추어 거시적 정책의 역주기 조정을 강화하고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욱 힘쓴다.

◆ 국내 유효 수요 부족과 같은 문제에 비추어 내수 확대 증량 정책의

조점을 더욱 많은 인민 생활과 소비 촉진에 두고 경제성장에 대한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시킨다.

◆ 현재 일부 기업의 생산 및 운영 어려움에 비추어 기업 지원을 늘리고 경영환경을 효과적으로 최적화하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약세에 비추어 부동산시장의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포괄적인 정책 조치를 취한다.

◆ 전기 주식시장의 요동 및 하락과 같은 문제에 비추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일련의 조치를 출시한다.

/ 인민넷

[ 여러 민족 단결분진해  
한마음으로 중국꿈 구축 - 연길편 ]  
( 관련 기사 8면 )